42억 아시아인의 축제…16일간 열전 속으로

"42억의 꿈을 싣고 출항" 압도적인 화려함, 그리고 파워풀한 웅장함. 12일 중국 광저우 주장 하이신사에서 제16회 광저우아시안게임 개막식이 펼쳐지고 있다. 광저우의 탄생을 알렸던 '물'과 형형색색의 빛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 광저우(중국) | 연합뉴스

"조화로운 아시아를 향해"…꿈의 항해가 시작되다

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 화려한 팡파르

45개국 상징 형형색색 선박 장관
5000년 중화문명 개막식에 담아

제16회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펼쳐진 12일 광저우 주장(珠江) 하이신사(海心沙) 특설무대. 밤 하늘을 담은 주장 수면 위로 5000년 중화문명의 결정판이 아로새겨졌다.

2010광저우아시안게임에 참가한 45개국을 상징하는 형형색색의 배들이 오후 7시18분 '강물을 따라 항상 행복하게'라는 노래에 맞춰 긴 행렬을 이루며 미끄러지듯 물살을 가르기 시작하자 광저우는 순식간에 빛의 도시로 탈바꿈했다. 물과 빛, 생명을 찬양하는 거대한 퍼포먼스는 오후 9시부터 시작된 공식 개막식과 축하공연으로 거듭 이어졌다. 만리장성과 자금성, 2008베이징올림픽 당시 주경기장으로 웅장한 자태를 뽐냈던 궈자티위창(國家體育場)과 현대적 조형미의 결정체로 각광 받은 수영장 워터큐브 등 중국의 과거와 현재를 상징하는 대형 건축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지나간 대형 스크린쇼, 와이어를 이용해 공중과 지상을 연결한 형태로 연출된 꼭두각시 쇼는 이날 개막공연의 하이라이트.

개막공연에 이어 오후 10시15분부터는 각국 선수단이 입장했다. 핸드볼 스타 윤경신(37·두산)을 기수로 내세운 한국 선수단은 흰색 하의, 하늘색 정장 차림으로 알파벳 순서에 따라 16번째로 입장했다. 북한은 7번째, 한국과 치열한 2위 다툼을 벌일 일본은 13번째, 개최국 중국은 맨 마지막 순서로 각각 입장했다.

비록 격랑이 몰아치지만 달콤한 인생. 광저우아시안게임 개막식 식전행사에서 란닝 문화를 대변하는 화려한 남녀 무희들의 춤이 이어지고 있다. 광저우(중국) | 연합뉴스

크리켓을 제외한 41개 종목에 걸쳐 역대 최대 규모인 806명의 선수를 파견한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65개 이상으로 아시안게임 4회 연속 종합 2위를 목표로 삼고 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개회 선언과 함께 공식 개막한 광저우아시안게임은 27일까지 476개의 금메달을 놓고 보름간의 열전을 지속한다.

광저우(중국) |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하늘이 내린 물과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어우러졌다. 광저우아시안게임 개막식 식전행사에서 아름다운 여성들이 물이 솟아오르는 북을 두드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광저우(중국) | 연합뉴스

'대한민국 첫 금을 향해 쏴라!' 한국사격의 간판스타 진종오가 12일 중국 광저우 아오티 사격장에서 진지한 모습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 그는 13일 남자 50m권총에서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광저우(중국) | 연합뉴스

진종오, 오늘 첫 금 쏜다

남자 권총50m 우승 유력
"한국 골드 스타트 맡겨라"

한국사격의 간판스타 진종오(31·KT)가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 대한민국 1호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이변이 없는 한 13일 오후 2시(한국시간)부터 열리는 남자 50m 권총 결승에서 금빛총성을 울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종오는 유독 아시안게임과 인연이 없었다. 처음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서 10m 공기권총 개인전 동메달, 50m 권총 단체전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에서도 중국 탄종량(39)과 북한 김정수(33)에 밀려 공기권총 동메달에 그쳤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며 세계 정상에 우뚝 섰지만 개인적으로 아시안게임 첫 금에 욕심이 난다.

게다가 진종오 입장에서는 이번 대회가 '리벤지 시리즈'이기도 하다. 도하에서 고배를 마시게 했던 탄종량이 2년 만에 돌아온다. 베이징올림픽 당시 0.2점 간발의 차로 은메달을 차지했던 김정수도 도핑테스트 양성반응으로 2년간 국제대회 출전이 금지됐으나 이번 대회를 통해 복귀한다. 특히 김정수는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7관왕에 빛나는 북한 사격의 전설 서길산 감독의 뒤를 잇는 북한사격의 대표선수. 진종오와 김정수의 남북 첫 금메달 대결이 이목을 끌고 있다.

한편 진종오는 14일 세계기록을 갖고 있는 10m 공기권총에 출전한다. 이 종목에서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중국 팡웨이, 독일 세계선수권대회 공기권총 개인전 우승자 일본 마쓰다 토모유키 등 쟁쟁한 적수들이 즐비하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마스코트를 알면 광저우가 보인다.' 중국 공안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광저우 아시안게임 마스코트 앞을 지나가고 있다. 광저우의 마스코트는 5마리의 염소를 형상화한 것이다. 광저우(중국) | 연합뉴스

개최국 상징 동물 형상화…광저우 모델은 염소

▮ AG 마스코트 변천사

백 마디 글보다 단 하나의 그림이 더 선명하게 기억될 때가 있다. 우리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이나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호돌이'로 추억하는 것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대회 마스코트는 개최국의 상징동물을 모델로 삼는 것이 보편적이다. 1982년 인도 뉴델리 아시안게임에서는 코끼리 아뿌(APPU)가 마스코트로 나섰다. 중국에서 열린 최초의 아시안게임인 1990년 베이징 대회에서는 판다곰을 내세웠다. 판판(Pan Pan)이라는 이름의 판다곰이 금메달을 걸고 대회를 홍보했다.

그리고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의 마스코트는 비둘기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원자폭탄을 맞았던 비극의 도시 히로시마에 평화의 이미지를 새로 입히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1998년 태국 방콕 아시안게임은 코끼리가 상징동물로 부각됐다. 이어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은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감안해 갈매기를 부각시켰다. 1986년 아시안게임이 국가적 행사였다면 2002년 대회는 지역적 축제로서의 의미로 변모되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2006년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에서는 '오리(Orry)'라고 칭한 오릭스라는 염소 비슷한 동물이 뽑혔다. 그리고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염소 5마리가 집단 마스코트로 나선다. 옛날 기근에 시달렸을 때, 신선 5명이 염소 5마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와 광저우에 풍요를 내려줬다는 전설에서 유래했다. 5마리 염소는 아샹(길조) 아허(화목) 아루(행복) 아이(원만) 러양양(기쁨)이라고 불린다.

참고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천연기념물인 백령도 점박이 물범이 마스코트로 결정됐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편집 |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광저우 아시안게임 특별취재반 명단

스포츠동아= 김도헌 기자, 전영희 기자(스포츠 1부)
동아일보= 이승건 기자, 김성규 기자, 한우신 기자(스포츠레저부) 변영욱 기자(사진부)